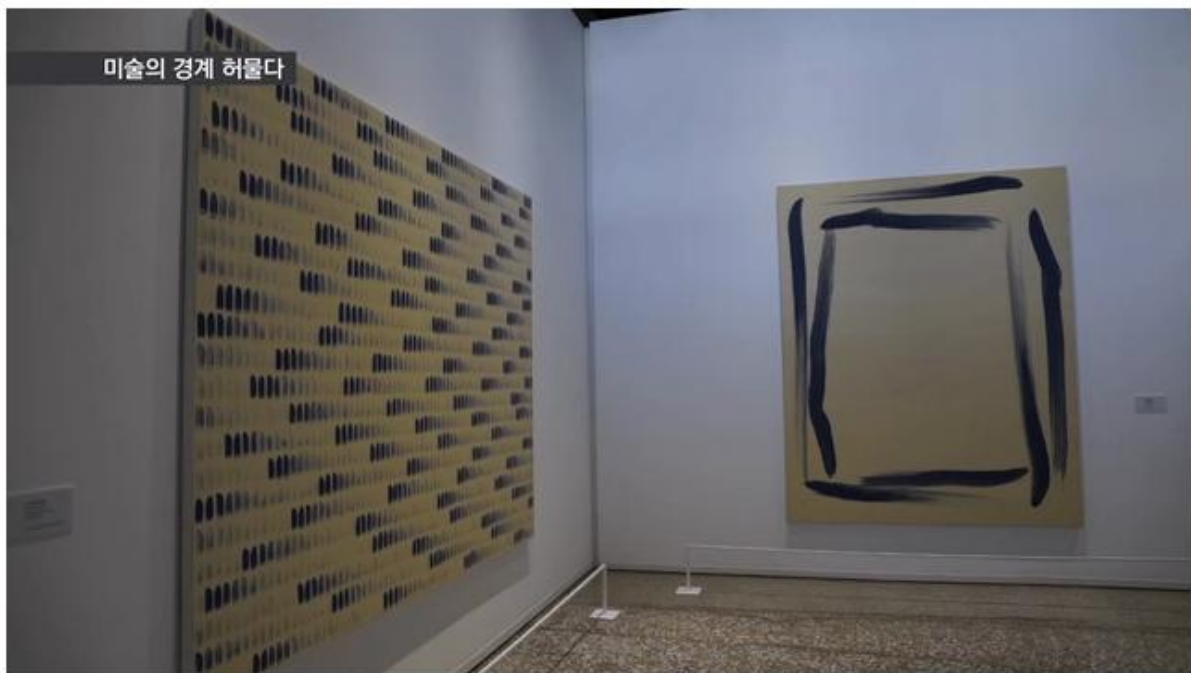


베니스 비엔날레

곽상은 기자

2015.05.09 16:59





<앵커>

'현대미술의 올림픽'으로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작가 임흥순이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.

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 현장으로 곽상은 기자가 안내합니다.

<기자>

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한국 작가들이 본 전시에 6년 만에 3명이나 진출했습니다.

임흥순 작가는 역량 있는 젊은 작가에게 주는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.

임 작가의 다큐멘터리 작품 '위로공단'은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미학적으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.

이곳에서는 본 행사와 함께 한국 유명 작가들의 단색 추상화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습니다.

현대 미술의 경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미술계 최대 축제는 오는 11월까지 전 세계 관객들을 맞습니다.

(영상편집 : 이흥명)

URL: 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2967853